

북한주민의 통일의식 조사 연구: 북한주민 100명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강 동 원* · 박 정 란**

- I. 서론
- II. 연구방법
- III. 북한주민들의 통일의식 실태
- IV. 심층면접을 통해서 본 북한주민들의 통일의식
- V. 결론을 대신하여: 남북한 주민들의 통일의식 비교와 정책과제

국문요약

한반도 통일이 남북한 주민들의 '함께 잘 살아가기'라면 현재 분단된 상황에서 북한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에 따라 우리의 통일정책 방향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 현재 북한주민들은 통일을 얼마나 원하고 있으며 그들이 바라는 통일조국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주민들은 과연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에 따라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의식조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통일의 또 다른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통일의식 조사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다. 북한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에

따라 우리의 통일정책 방향이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주민들의 통일의식 조사는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연구 작업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제3국에서 북한주민을 직접 만나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북한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통일의식에 대한 양적통계를 제시하고 심층면접을 통해 통일의식에 대해 조사하였다. 아울러 남북한 주민들이 상호 통일의식에 대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주제어: 통일외교학, 남북한 주민, 한반도 통일, 통일정책, 통일외교학, 통일시기

*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 카자흐스탄 유라시아국립대학교 한국학과

I. 서론

한반도 통일은 남한만의 주도가 아닌 북한이라는 분명한 상대를 고려해야 한다. 그 상대는 다시 일반 북한주민들과 정치적 결정권을 가진 당국자로 구분할 수 있다. 통일과정은 정치, 제도적 부분과 함께 실제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독일 통일과정에서 제도적 통일은 이루어졌지만 동서독 주민들 간의 이른바 ‘마음의 통합’은 여전히 진행중이라는 점은 우리에게 주요한 시사점을 준다. 또한 동독 주민들은 체제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서독의 민주주의를 자신들이 살아갈 체제로 스스로 선택했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 북한주민들은 통일을 얼마나 원하고 있으며 그들이 바라는 통일조국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진다. 통일이 남북한 주민들의 ‘함께 잘 살아가기’라면 현재 분단된 상황에서 북한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에 따라 우리의 통일정책 방향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에서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통일의식조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다. 통일, 북한 관련 연구소나 대학과 정부 산하기관 등은 정기적으로 매년 설문 조사를 통해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¹ 남북관계 주요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대국민 의식조사를 시행하였다.² 이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주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되었고 우리 사회의 통일 준비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지침이 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통일의 또 다른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통일 의식 조사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연구대상자인 북한주민들을 면접하는 것은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대국민 설문조사는 전화를 통한 무작위선정도 가능하지만 북한주민들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제3국에 나온 북한주민들을 1대1 방식의 면접을 통

¹ 대표적으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통일의식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북한인식, 통일의식, 대북정책 등이며, 전국의 성인 1,2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² 남북관계의 주요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국내 언론사를 비롯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식조사가 진행되었으며 통일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 등에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조사로는 아산정책연구원과 동아일보에서 수행한 통일프로젝트를 대표적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이 조사는 주요이슈 발생 시 설문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통일의식과 주요 이슈에 대해 조사하는 방식이다. 1차 조사는 9월 4~6일, 2차는 9월 7~10일 실시했고 3차 조사는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와 황병서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포함한 ‘북한 3인방’의 방문 직후인 10월 6~8일 실시하여 10월 13일 그 결과를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해 만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이 역시 섭외를 비롯하여 면접과정 등에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연구대상의 제약으로 인해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는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주민들의 통일인식에 따라 우리의 통일정책 방향이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주민들의 통일의식 조사는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연구작업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제3국에서 북한주민을 직접 만나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통일의식에 대한 양적통계를 제시하고 심층면접을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주민들은 과연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에 따라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주제

본 연구는 북한주민들의 통일의식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 중국 현지에서 북한주민 100명을 직접 면접조사 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³ 본 연구에서 말하는 ‘북한주민’은 남한으로의 입국이나 중국 등 제3국으로의 이주를 목적으로 탈북한 것이 아니라 식량구입 및 장사를 목적으로 국경을 반복해 넘나드는 사람들과 공식적으로 중국의 친지 방문을 목적으로 비자를 받고 나온 사람들이다. 이들에 대해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양적조사와 함께 개인별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기존연구가 주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이나 제3국에서 소수의 탈북자나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면접이었다면 본 연구는 탈북자가 아닌 합법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더불어 면대면 접촉에 의한 양적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조사내용은 크게 1) 통일의식, 2) 대남인식 및 남한사회 호감도, 3) 주변국 호감도, 4) 북한실태, 5) 북한 및 중국에서의 미디어 이용실태 등 총 5가지 대주제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본 글은 1) 통일의식 부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³ 본 연구에서 수행한 100명의 북한주민 면접을 위해 지난 2013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전 면접조사를 시행하였다. 이 때 약 20여 명의 북한주민들을 사전면접하여 면접 질문문항을 수정보완 하였으며, 향후 100명까지 면접조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여 본 조사가 시작되었다.

대주제인 1) 통일의식 부분은 다시 네 개의 세부주제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통일의 필요성 및 시기에 대한 내용이다. 여기에는 응답자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구분하여 통일을 얼마나 원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아울러 통일이 이뤄진다면 그 시기는 언제로 예상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했다. 두 번째는 통일편익에 대한 내용이다. 통일편익은 통일이 북한과 개인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세 번째는 통일방식에 대한 내용으로,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통일을 이루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아울러 통일한국이 어떠한 체제가 될 것으로 인식하는지 여부와 북한정권이 주장하는 민족해방통일(적화통일)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도 포함했다. 북한주민들의 민족해방통일에 대한 인식은 현재 북한정권에 대한 충성도 및 신뢰도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체제 내구력을 추론해 볼 수 있는 주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통합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즉, 통일이후 남북한 주민들이 잘 어울려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과 현재의 문화, 정신적 격차를 인정하는지 만약 인정한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 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또한 통일 이후 남북한 중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과 통일 이후 북한의 핵무기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가라는 내용도 포함했다.

<표 1> 주요 질문 문항

대주제	세부주제	질문
통일의식	통일의 필요성 및 시기	귀하는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주변의 북한주민들이 남북통일이 되기를 얼마나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편의	귀하는 통일에 따른 비용과 이익 중에 어느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통일이 북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통일이 자신에게는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통일방식	귀하는 통일을 이루기 위해 어느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통일한국이 어떤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북한 정권이 내세워온 민족해방 통일(적화통일) 방안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 보십니까?
	통일이후 모습	귀하는 통일이 되면 남북한 출신 주민들이 어떻게 지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통일 이후 언제쯤 남북이 정신, 문화적 이질감과 소득, 생활수준 격차를 줄여 완전한 사회경제적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통일이 되면 어느 지역에서 거주할 생각이십니까?
		귀하는 북한의 핵무기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 연구대상

연구방법상 면접참여자 개인별 성별과 나이, 지역, 학력 등 기본사항을 가능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면접참여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인구학적 특성은 개별적 공개를 지양하고 통계 수치를 통해 최소한의 자료만 공개하기로 한다.⁴ 또한 필요

⁴ 국내 입국한 탈북민의 면접조사 시에도 기본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본인은 물론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들의 신변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다.

에 따라 심층면담 내용서술에서 개인별 인적사항 공개가 필요할 때는 성별, 연령대에 한해 밝히고자 한다. 응답자 100명 전체에 대한 인구학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북한주민들은 중국에 친척방문을 위한 사사여행자의 신분으로 방문을 하는데 대략 공식 체류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이다. 공식기간 중에 친지로부터 물질적인 도움을 받거나 본인이 스스로 일을 하여 돈을 마련하는데 충분한 돈이 마련되지 않으면 공식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으로 거주하게 된다. 허가기간이 지나게 되면 북한 입국 시 벌금을 내야 하는데 그 외에 특별한 제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본 조사에서 만난 북한주민들은 북한에서 중국으로 들어온 바로 당일 면접을 실시한 경우도 있으며 길게는 1년 이상 중국에서 체류 중인 경우도 있었다.

본 조사를 위해 만난 북한주민들의 중국 입국 시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도별로는 2012년 4명, 2013년 53명, 2014년 43명이다. 북한주민의 성별은 남자가 48명, 여자가 52명이다. 연령대는 10대와 20대가 각각 2명이었으며 30대가 10명, 40대 22명, 50대 38명, 60대 22명, 70대가 4명이었다. 상대적으로 20대와 30대의 수가 작은 것은 북한 당국이 친지방문자의 연령대를 주로 40대 이상자에 한해 승인을 해주기 때문이다. 거주지는 평양 16명, 남포 2명, 평안남도 12명, 평안북도 46명, 함경남도 1명, 함경북도 2명, 자강도 6명, 황해남도 8명, 황해북도 5명, 강원도 2명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소학교 12명, (고등)중학교 82명, 전문학교 3명, 대학교 2명, 무학 1명이다.

이상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분포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로 정리된다. 학력분포에서 소학교와 중학교 졸업자가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은 본 연구 결과가 북한 내 고학력 엘리트층의 견해를 아우르지 못하는 한계가 된다. 또한, 연령층에 있어서도 청년층보다는 중장년층 비중이 높다는 점도 연구 대상의 한계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응답자의 거주지가 함경도를 포함한 국경지역은 단 3명에 그치는 반면, 평양, 평안남북도 자강도 등 내륙 지역 분포가 다양하게 안배되어있다는 점은 본 연구 결과가 일정 국경지역에 편향된 의식조사로 그치는 한계를 극복하게 한다. 또한 남녀 구성비가 거의 비슷하다는 점, 응답자의 대다수가 면접 당시 중국 내 체류 기간이 1년 내에 분포하고 있다는 점은 본 연구

연구자의 입장에서도 연구대상자의 성별과 지역, 계층, 세대 등을 변수로 하여 분석을 좀 더 세분화 하고 심층면담 내용에 대해 개인별 인구사회학적 사항을 제시하고 싶다. 하지만 단순 도강자가 아닌 정식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나온 북한주민들의 신원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구대상자 개인별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공개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100명 대상 전체에 대한 학력, 성별, 세대, 거주지, 연령 등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여 연구대상자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다.

가 북한주민 의식조사로서 대표성과 시의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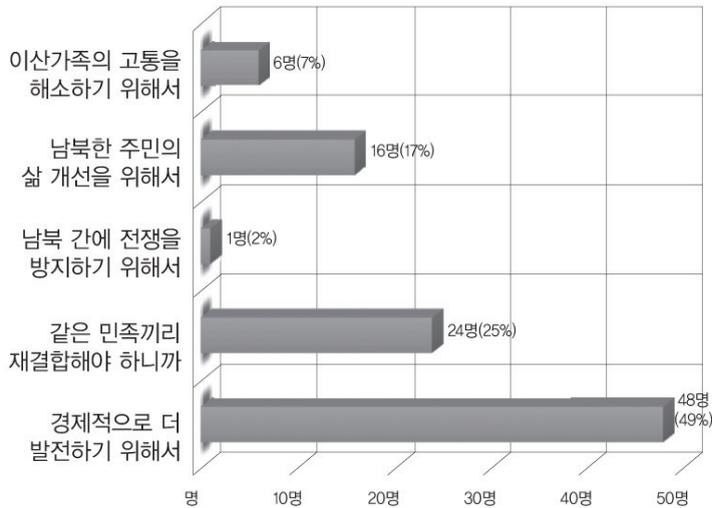
Ⅲ. 북한주민들의 통일인식 실태

1. 통일의 필요성 및 시기

북한주민들은 통일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95명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5명만이 반반/그저 그렇다고 응답하여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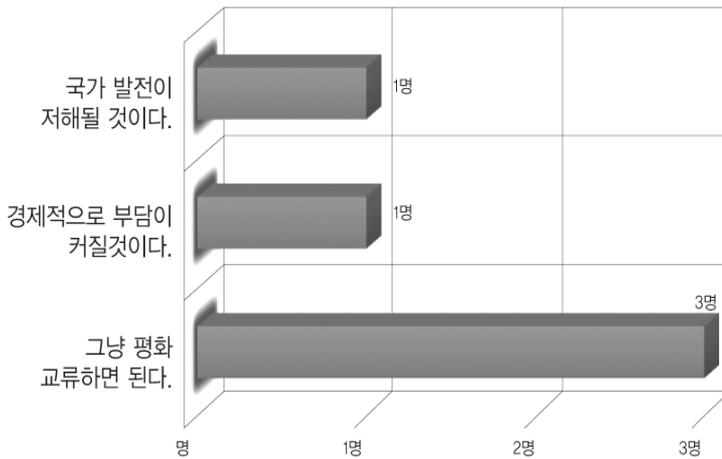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95명에 대해 그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경제적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48명(49%), 같은 민족끼리 재결합해야 하니까 24명(25%), 남북 간에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1명(2%), 남북한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해 16명(17%),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6명(7%)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1> 통일의 필요성 및 시기(1)



반대로 통일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그냥 평화 교류하면 된다는 응답이 3명, 경제적으로 부담이 커질 것이다, 국가발전이 저해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각각 1명씩이었다.

<그림 2> 통일의 필요성 및 시기(2)



한편 본인 이외 주변 북한주민들이 남북한 통일을 원하는 정도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매우 원한다는 응답이 95명, 약간 원한다 2명, 반반/그저 그렇다 1명, 전혀 원하지 않는다 2명으로 97명이 본인 이외에 주변의 사람들도 통일을 강력히 희망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이로써 본인뿐 아니라 주변인들의 통일을 원하는 정도가 ‘매우’ 크다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북한에서 통일반대 세력은 누구로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중앙당 간부 35명, 군부 2명, 시장 상인 1명 이었으며, 이 질문에 대해 답변을 꺼린 무응답자는 62명이었다. 본 질문에 무응답자의 수가 많은 것은 응답자의 직업이 대부분 노동자, 농민인 일반 주민임을 감안할 때 응답자들은 답항에서 보기로 주어진 중앙당 간부, 군부 등 중에서 선택하는 답변을 꺼려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통일이 이뤄질 연도로 5년 이내 27명, 10년 이내 29명, 20년 이내 12명, 30년 이내 6명, 30년 이상 7명, 불가능하다 19명으로 나타났다. 10년을 주기로 단·중장기를 설정한다면 응답자의 56%가 10년 이내 단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았고, 중기인 20년 이내는 12%, 장기인 30년 이상은 7%로 나타났다. 또한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은 19%로 응답한 북한주민들 과반수 이상이 10년이라는 단기간 내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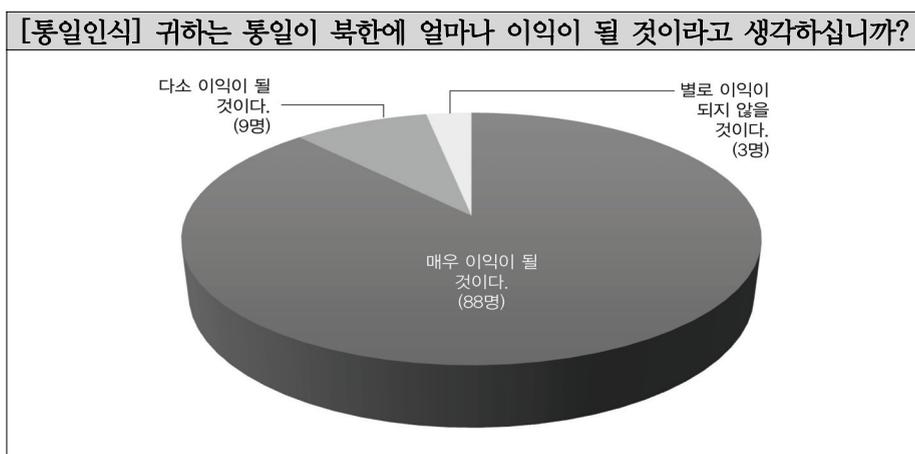
<그림 3> 통일의 필요성 및 시기(3)



2. 통일편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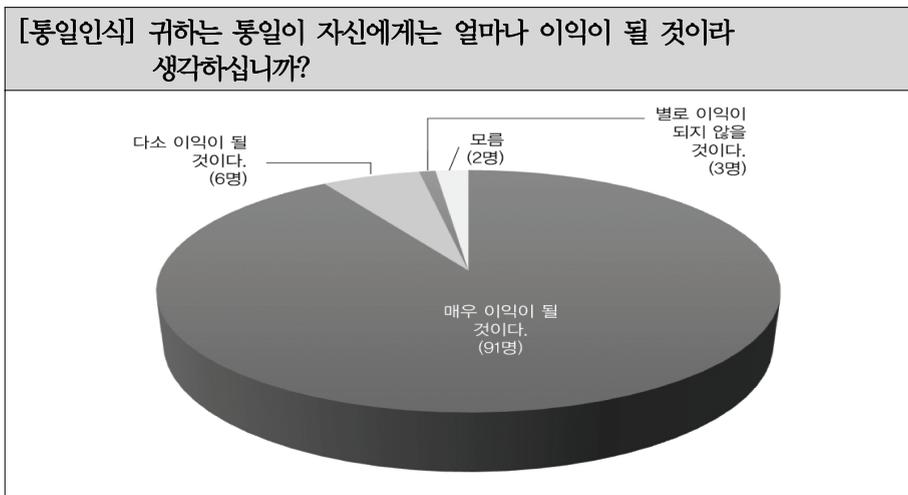
통일에 드는 비용과 얻을 이익에 관해서 비용이 더 크다는 응답이 18명, 이익이 더 크다는 응답이 82명으로 통일을 통해 얻을 이익이 더 클 것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크게 우세했다. 북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88명,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9명,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3명으로 97%가 통일이 북한에 이익이 될 것으로 인식했다.

<그림 4> 통일편익(1)



북한주민들은 자신에게 통일이 얼마나 이익이 될지에 대해서는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91명,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6명,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1명, 모른다는 응답이 2명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100명의 응답자 가운데 97명이 통일이 자신에게도 이익이 될 것으로 인식했는데, 이는 앞서 질문인 통일이 북한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97명과 동일한 응답자 수로 응답자 절대다수가 통일이 북한은 물론 본인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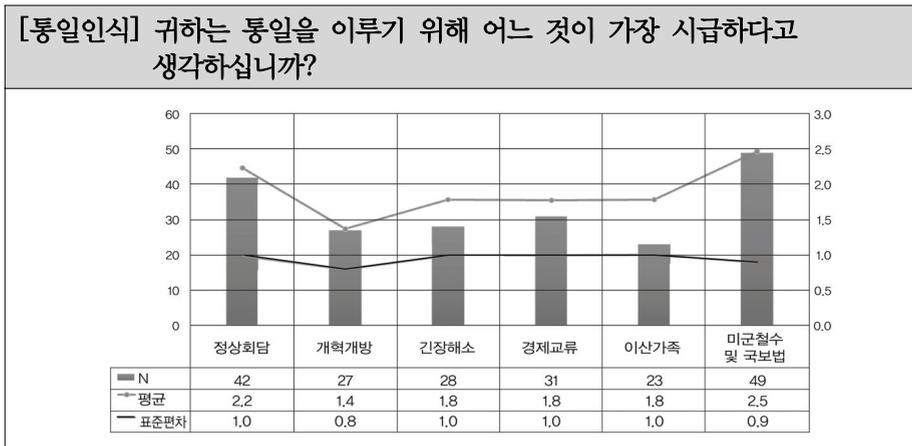
<그림 5> 통일편익(2)



3. 통일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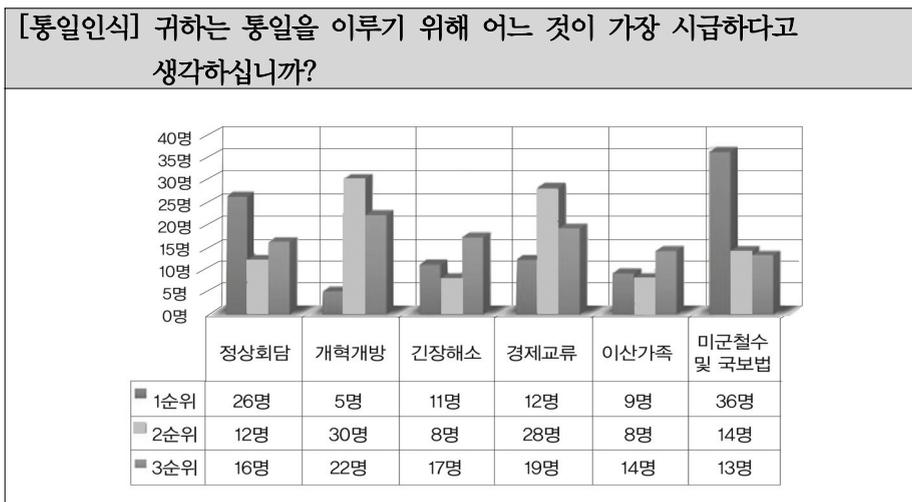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시급히 해결할 사항은 1순위가 미군철수/국가보안법 폐지(2.5), 2순위로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2.2), 3순위로 군사적 긴장 해소, 남북 경제 교류, 이산가족 문제 해결(1.8)로 나타났다.

<그림 6> 통일방식(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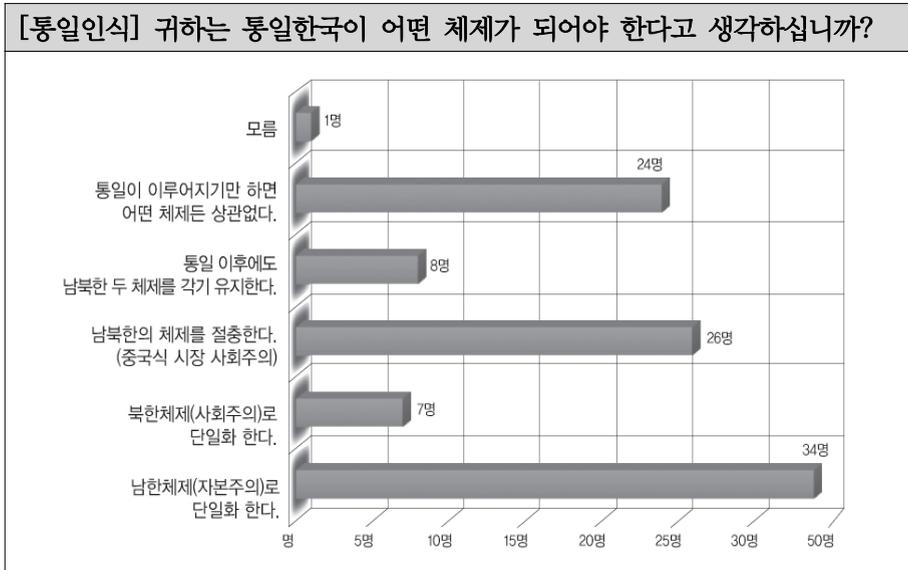
위 문항의 1순위부터 3순위까지 가중치를 부여한 총점과 별도로 순차적 의미에서 순위를 부여한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다. 남북정상회담과 미군철수 및 국보법 폐지와 같은 정치적 사안이 1순위로 조사되었다면, 개혁개방과 경제교류 등이 2순위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군철수와 국보법폐지는 북한 당국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것으로 이 부분에서 북한주민들의 내면화된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2순위로 북한의 개혁개방과 경제교류가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그림 7> 통일방식(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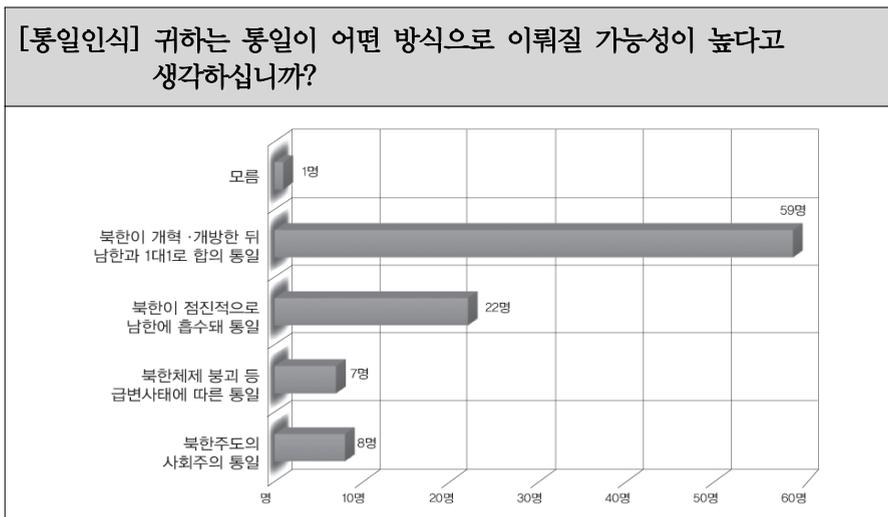
통일한국의 체제는 남한체제(자본주의)로 단일화한다 34명, 북한체제(사회주의)로 단일화한다 7명, 남북한의 체제를 절충한다(중국식 시장 사회주의) 26명, 통일 이후에도 남북한 두 체제를 각기 유지한다 8명, 통일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어떤 체제든 상관없다 24명, 모름 1명으로 나타났다.

<그림 8> 통일방식(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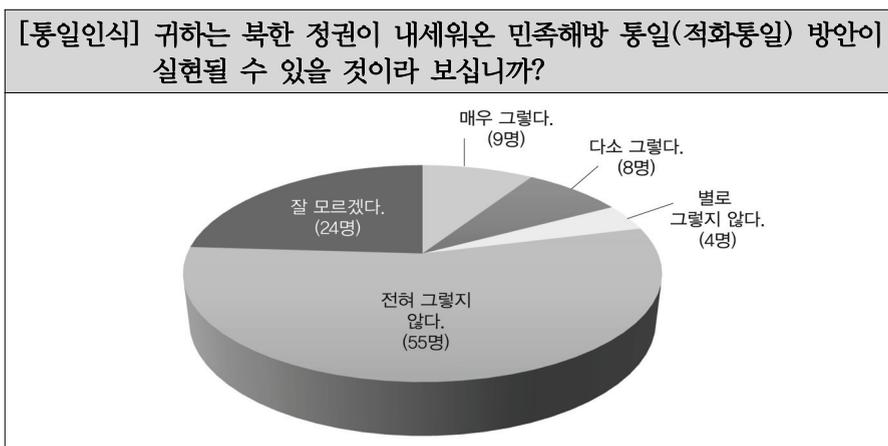
통일의 방식에 대해 북한 주도의 사회주의 통일 8명, 북한 체제 붕괴 등 급변 사태에 따른 통일 7명, 북한이 점진적으로 남한에 흡수돼 통일 22명, 북한이 개혁·개방한 뒤 남한과 1대1 합의 통일 59명, 모름 1명으로 절반 가량이 북한이 개혁개방 뒤 남한과 1대1 합의통일을 이루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했다.

<그림 9> 통일방식(4)



북한이 주장한 적화 통일의 실현 가능성은 매우 그렇다 9명, 다소 그렇다 8명, 별로 그렇지 않다 4명, 전혀 그렇지 않다 55명, 잘 모르겠다 24명으로 응답했다. 앞서 질문에서 북한 주도의 사회주의 통일 가능성이 8%로 응답하였다는 점과 비교할 때 역시 북한당국이 주장하는 적화통일의 가능성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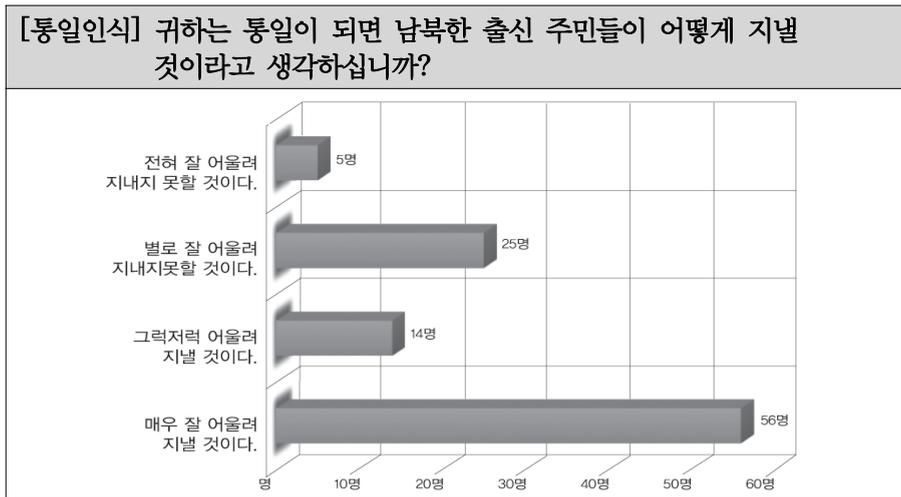
<그림 10> 통일방식(5)



4. 통일이후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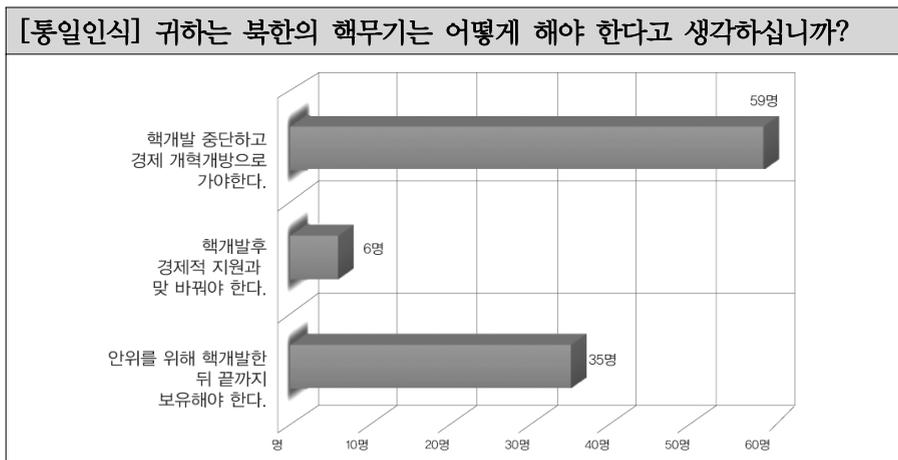
통일 이후 남북 주민들의 어울림은 매우 잘 어울려 지낼 것이다 56명, 그럭저럭 어울려 지낼 것이다 14명, 별로 잘 어울려 지내지 못할 것이다 25명, 전혀 잘 어울려 지내지 못할 것이다 5명으로 응답했다. 남북의 완전한 통합에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가라는 질문에 5년 이내 63명, 10년 이내 33명, 20년 이내 4명으로 응답했다. 북한주민들의 경우 현재 남북한 주민 간의 가치관, 생활양식의 차이는 인정하지만 통일이 되었을 때 5년이라는 단기간안에 남북한 주민들의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응답하여 실제 차이를 극복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1> 통일이후 모습(1)



통일이후 거주지는 북한에서 살 것이다 41명, 남한에서 살 것이다 32명, 남쪽 이든 북쪽이든 처한 상황에 따라 선택할 것이다 23명, 외국에 나가 살 것이다 3명, 모르겠다 1명으로 조사되었다. 북한 핵무기는 안위를 위해 핵개발한 뒤 끝까지 보유해야 한다 35명, 핵개발 후 경제적 자원과 맞바꿔야 한다 6명, 핵개발을 중단하고 경제 개혁개방으로 가야 한다 59명으로 북한주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그림 12> 통일이후 모습(2)



IV. 심층면접을 통해서 본 북한주민들의 통일인식

1. 북한주민들은 통일을 왜, 얼마나 원할까?

남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통일인식 조사를 보면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지적되곤 한다. 하지만 북한주민들의 생각은 달랐다. 그들은 한결같이 통일을 원하고 있었으며 하루라도 빨리 통일이 되어 다 함께 잘살면 좋겠다고 말한다. 우리가 만난 100명의 주민들 가운데 95명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들에게 과연 통일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무엇보다 북한주민들은 통일이 되면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경제적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라는 답변(49%)을 한 응답자들은 대부분 통일이 되면 남북한 모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인식했다. 중국 식당에서 일한다는 40대 여성은 통일을 원하는 이유를 묻자 “좀 배불렀으면 좋겠다”고 했다. 북한주민들은 통일이 되면 경제적으로 발전한 한국이 북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여겼다. 한 40대 남성은 “조선엔 자원은 많지만 돈이 없어서 개발을 못하잖나. 기술도 부족하고... 한국은 기술이 좋으니까 통일되면 잘살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어느 40대 여성은 “우리 북조선은 잘 못하는데 한국이 잘사니까 많이 도움 받을 수 있고, 우리 북조선 사람들도 행복하게 잘살 수 있지 않겠느냐”며 “그래서 빨리

통일을 기다린다”고 했다. 특히 “생활수준도 좋아지고 친척방문도 하며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말한다. 다른 주민도 “통일되면 개인농(農)을 할 수 있고, (생산물을) 내가 다 가질 수 있지 않겠냐”고 했다. 평안북도가 고향인 60대 여성은 중국에 와서 한국 TV를 보며 남한이 잘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통일이 되면 조선도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했다.

요새 중국에 와서 텔레비전으로 보니까 남한이 아주 잘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남한 텔레비전 보면 농장에 가서 잘 먹고 그런거 정말 부러워요. 북남이 통일되면 더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통일되면 조선도 나아지겠지요 (60대, 여성).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경제적 이유 다음 순으로 ‘같은 민족끼리 재결합해야 하나니까’라는 응답(25%)이 많았다. 평양에서 온 50대 남성은 “조선은 예로부터 한 민족이고, 한 나라였는데 둘로 갈라져 산다는 게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그를 면접하던 시기가 지난 2월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던 때였다. 중국에서 남한 방문을 통해 그 광경을 직접 봤다는 그는 ‘가까운 땅에서 서로 친척들도 방문 못하고 교류도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며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예로부터 한민족이고 한 나라였잖아요. 한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산다는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지금 텔레비전 보니까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하던데 그거보면 눈물 나는 일 많단 말입니다. 옛날부터 부모 조상들이 한 나라에서 살다가 지금 갈라져서… 가까운 땅에서 서로 친척들 방문도 못하고 교류도 못하니까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빨리 통일되면 좋겠어요 (50대, 남성).

70대 여성은 ‘같은 민족이니까 남북통일이 되어 손잡고 왔다 갔다 하며 사는 게 죽기 전에 소원’이라고 말했다. 북한에서 최근까지 보따리장사를 하며 힘겹게 살아왔다는 그의 대답은 최소한 통일이 북한주민들에게는 경제적으로 잘 살기 위한 하나의 희망이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농장원이니까 다른 것은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도적질 밖에 없는데 그것도 못하니까 살길이 어렵고 힘들었지… 조카들이 다 농장원들인데 너무 힘들고 오마니 아버지 없이 크게 불쌍해서… 중국에 와서 친척들에게 얻어갈게 있나 해서 500달러를 빚지고 왔는데 정말 많이 캄캄하다. 나가서 뭇푼이라도 벌려

고 나물도 좀 캐서 팔고… 해삼도 팔고 하는데… 인제 기간(체류 허용기간)도 다 되었으니 인차 들어가야지…(70대, 여성).

통일이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3순위 응답은 ‘남북한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해서’라는 응답(17%)이었다. 통일이 되면 좀 더 자유로운 삶을 누릴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황해도가 고향인 30대 여성은 “지금 조선 사람들(북한주민들)은 딱 새장 안에 사는 새나 같다”면서 “(새장을 벗어난) 새처럼 다니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싶은 것 보고, 먹고 싶은 것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는 것이다”라고 했다. 통일이 되면 자유와 인권이 향상되어 북한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 자유라는 개념을 이야기했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했다.

제가 생각하는건 우선 자유가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돈 벌수도 있고, 마음대로 잘 살수도 있고, 또 동포들도 있고, 헤어진 친척들도 볼 수 있고, 사실상 평화통일하면 다 살만하다고 느끼죠…(50대, 여성).

고저 좀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통일이 되면 그렇게 되겠지요(40대, 여성).

한 여성은 일곱 살 때부터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한국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녀인데 한국이 그림고 보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능력이 없어서 못 간다고 체념한 듯 이야기했다.

자유롭게 살면서 서로 다 수준이 같은 형편에서 살면 서로 보기도 좋고, 마음도 편하잖아요. 그니까, 빨리 통일되면 우리도 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하지요. 항상. 그리운 것도 한국이고, 보고싶은 것도 한국이에요. 가고 싶고, 보고 싶은게 한국이에요. 자나깨나, 나는 일곱 살부터 생각할 때 “나도 크면 한국에 한번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뭐, 능력이 있어야 가지요.”(40대, 여성).

북한주민들이 통일은 원하지만 서로 마음 놓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는 어렵다고 한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정치적인 이야기는 못하기 때문에 마음은 알지만 서로 깊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는다고 한다. 친구들을 비롯하여 주변 사람들 보면 100명 중에 60명은 ‘통일되는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한 50대 남성은 통일이 되면 북한의 인권이 나아질 수 있다는 말을 했다. 인권

의 개념을 아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초보적인 자유’로 인식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그저 본인이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자유만이라도 허용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세상에 부러움 없는 나라’라고 선전하지만 초보적인 권리조차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통일이 돼야 나라가 크지. 북으로 볼 때는 아마 인권을 개선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인권은 초보적인 자유지요. 말하자면, 어디서 어딜 내가 간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게 제일 가슴 아픈 말인데 뭐 세상에 제일 부럼없는 나라라고 하는데, 초보적인 권리도 안주면서...(50대, 남성).

2. 통일을 원하지 않는 북한주민들의 반응

그런데 우리가 만난 북한주민들 모두가 통일을 원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었다. 오래전부터 통일을 이야기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포기 상태라는 것이다. 또한 통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전쟁이라도 나서 이 상황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전쟁이나 꼭 일어나라. 그 말 밖에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다 된다는거지. 재구재구 하니까 장마당에서도 그 소리 나온단 말이죠. 너무 조이니까... 폭발되든 지진이 일어나든 뭐 하나 있어야지. 통일이란 말은 안 꺼내요. 오직, 전쟁이나 꼭 일어나라 그러지.. 통일에 대한 열망이나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옛날부터, 통일 통일 했는데 안되니까 사람들이 다 포기한거지...(40대, 남성).

적잖은 인민들이 속으로 ‘다 굶어 죽을 바엔 한번 붙어보자. 전쟁이나 일어나라’고 생각한다(50대, 남성).

한 50대 여성 역시 통일은 이제 이루기 어렵다고 포기한 경우였다. 북한에 있을 때는 개성공단문제로 인해 남북한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줄 전혀 몰랐는데 중국에 와서 텔레비전을 보며 개성공단 사업이 중단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보며 통일은 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금 현실로 봐서 통일되기 힘들 것 같아요. 마음을 열어서 다 내놓아야 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지금처럼 서로 개성공단 하나만 봐도, 다 자기들 이익만 생각하니까. 조선에 있을 때 개성공단을 두고 싸우는 줄 몰랐는데 여기와서 보도를 보고 알았죠(50대, 여성).

3. 북한주민들은 통일이 되면 어떤 이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할까?

흔히 우리 사회에서는 통일이 되면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하여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고 한다. 한마디로 경제적 성장을 통해 상호 윈윈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다. 그렇다면 북한주민들은 통일이 되면 어떤 이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할까. 과연 그들이 말하는 통일이익은 무엇일까.

북한주민들은 통일이 되면 가장 먼저 남북한을 마음대로 오갈 수 있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같은 땅에서 서로 떨어져 살아가는 것이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인데 통일되면 장벽을 허물 수 있다는 것이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마음대로 오가는 꿈을 꾸기도 한다.

통일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마음대로 왔다갔다하구, 구경갈 수 있고 이거 우리땅이라고 하고. 서로 사람이 이동하면서 볼 수 있잖아. 서로 못보니까 이게 가슴아프다 그죠. 제땅에서 왜 마음대로 못가는거예요. 쪽 갈라져서 장벽에 막혀있는데 상당이 안타깝다고요.

북한주민들은 남북한이 자유롭게 왕래하면 서로 장사를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서로서로 오가며 장사도 하고 무역도 하면서 함께 잘살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통일이 된다고 하면, 다 잘살 수 있잖아요. 무역도 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또한 통일이 되면 장사를 위한 목적으로 어디든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다고 한다. 지금은 북한에서 어느 지역을 가려해도 통행증에 증명서가 있어야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장사도 마음대로 못하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한 발자욱만 움직이려 해도 증명서를 끊기 위해 뇌물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에 오니 자기가 가고 싶은 것을 버스만 타면 어디든 갈 수 있다는게 너무 신기하다고 한다. 통일이 되면 그렇게 남한까지 마음대로 오가면 장사를 하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다.

조국에서는 장사도 못하게 하지,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지. 내가 위에서 저쪽 위에 간다고 해도 뭐, 다 증명서 찍어야 되는데. 중국 오니까 뭐 여권만 내면 가는데… 근데, 여기는 버스만 타면 갈 수 있는데… 조선에서는 한 20기로 밖에 떨어져 가면 돈을 내고 증명서 내고, 안전부 증명서 내고 가야하니까 사람을 장사를 해도 어디 가지를 못하니까….

북한주민들은 통일이 되면 남북한이 경제적으로 모두 잘 살게 되고 나라가 잘 살면 개인도 잘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다. “통일되면 일 서로 다 하고, 집에서 노는 사람이 없다(40대, 여성)”는 말은 현재 북한에서 배급제가 붕괴되고 직장에 나가도 일할게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통일은 남북한 생활수준을 높게 해 줄 것이라 기대했다.

통일이 되면 수준 높아져서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수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면 수준이 높아야지…(30대, 여성).

대부분 남성 보다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많았다. 황해북도가 고향인 한 40대 여성은 ‘나라가 편안해지면 개인도 편안해 진다’고 생각하며 살림살이도 나라 살림이나 가정살림이나 똑같다고 인식한다. 나라가 잘 살면 개인들에게 돌아오는 몫도 많을 것이라고 한다.

나라가 편안해지면, 개인도 편안해지는 게 사실이니까. 살림살이 하는 거나, 나라 생활이나 그저 동반되어 있다고 봐야죠. 쪼그만 가정을 살림하나, 나라를 살림하나 이 문제니까 나라가 잘살면 개인 우리들도 좋고 나라가 어려우면 우리도 힘들고…(40대, 여성).

모든 점에서 다 좋죠. 뭐. 저도 나라가 다 잘사니까, 다 풀리니까 다 우리한테 돌아오는 몫도 많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요. 입는거 먹는거다(60대, 여성).

남한이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통일이 되면 남한의 경제적 지원으로 북한 역시 잘 살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식량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남한은 경제가 활성화 되어 있다고 표현한다. 통일이 되면 남한의 설비, 투자를 통해 북한의 자원을 활용하여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북한은 아무래도 뭐, 경제가 한국같이 활성화 못되어 있고 뭐 북한이 솔직히

뭐 식량이나 여러 부문에 다 어렵게 때문에 아무래도 뭐, 통일이 되면 북한이 이익이 되는 것만은 사실이죠(50대, 남성).

북조선이 경제는 떨어 졌잖아요 남조선보다... 남조선으로부터 설비가 들어오면... 원래 우리가(북조선) 자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잘 살 수 있겠다. 이런걸 사람들이 얘기한단 말입니다(40대, 남성).

통일이 되면 군사적 대결 상태가 해소되고 전쟁 위험이 사라지기 때문에 좋다는 사람도 많았다. 한 주민은 “통일이 빨리 돼야 군사 대결 상태도 풀린다.”고도 했다. 군사 대결상태로 인해 군사분야에 돈을 다 쓰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의 삶이 어렵다고도 말한다.

통일이 빨리 되어야 모든 것이 풀리지. 이렇게 군사, 대결상태 있으니. 다 그런데 돈을 다 쓰니까, 결국은 군사 그런데 집중하니까, 현실적으로 백성들이 고져 어렵지...

북한주민들 가운데 북한 당국의 과도한 군사비 지출과 전쟁준비로 인해 백성들이 굶어 죽는다는 증언도 있었다. “지금 조선에선 늘 대포 쏘고 전쟁 준비만 하니까 얼마나 고통이 많나”라며 “통일되면 경제 소모 덜 되고, 사람 고통도 적고 살아가기도 좋을 것”이라고 말한다.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보면서 가족들이 서로 만나고 헤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남이라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픔을 느꼈다고 한다. 통일이 되면 그런 세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하루속히 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이야기 한다.

통일 되면 먹고 사는데도 좋고 친척을 만날 수도 있고... 전쟁도 안 일어나구 얼마나 좋아요. 서로 다 정말, 경제도 그렇게 성장하고... 지금 북조선에서 늘 대포 쏘고, 돈이 들어가는 거 봐서는 백성들은 굶어죽는데 그냥 전쟁 준비만 하니까 얼마나 고통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통일이 되면 경제 소모도 덜되고, 사람 고통도 적구 살아가기도 좋지요 서로 다 한국이나 북조선이나 서로 좋지요. 이번에 금강산 이산가족 찾아가지고, 서로 울구 불구 갈라지매 하는거 보면서, 남이래도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픏니다. 그러니까, 통일만 되면 그런 세상이 없지요 뭐. 그래서 저는 통일되는 것을 하루속히 원합니다.

북한의 전쟁준비로 인해 백성들이 못 산다는 의견이었다. 통일이 되면 전쟁준비도 할 필요 없고 인민들이 좀 더 살수 있다고 생각했다. 조선민족이 다 통합되는

길은 통일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통일되야 좋죠. 조선민족이 다 통합되고, 북조선은 전쟁 준비도 할 필요도 없고… 지금이야 계속 군사를 중시하니까 백성들은 못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민을 좀 더 잘살게 할 수 있지요.

4.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주변에 통일을 원하지 않는 세력이 있다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했다.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통일을 원하지 않는 세력은 과연 누구일까.

질문의 답변문항으로 제시한 ① 중앙당 간부, ② 군부, ⑤ 교수, 연구원 등 지식인은 간부급에 속하는 정치, 경제적 신분이 높은 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물론 최근 북한 내에서 장사를 통한 경제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정치, 경제적 신분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만난 100명의 북한주민들은 대부분 노동당원이 아닌 일반 노동자, 농민들로서 정치적 계층은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이 생각할 때 북한에서 통일 반대 세력으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역시 중앙당 간부가 35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군부가 2명, 시장 상인이 1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100명 가운데 62명은 이 질문에 대해 응답하기를 꺼려했다.

본인은 통일을 간절히 원한다고 응답했지만 상대적으로 중앙당 간부들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했다. 우리가 만난 100명의 응답자들이 대부분 노동자, 농민들이었다는 점에서 통일 반대 세력은 당연히 자신들 보다 정치, 경제적 계층이 높은 사람들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건 누구도 표현 못합니다. 지가 어찌겠는지 표현 못하고 말하면 안됩니다. 큰일나죠. 그거는 진짜 큰일납니다.

북한주민들이 인식할 때 권력을 가진 계층은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실제로 한 응답자는 중앙당 간부들은 지금도 편하게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저 뭐 현재 조건에서 잘 살아가니까, 현재가 편할 거거든요. 자기가 노력 안 해도, 밑에 사람들이 다 갖다 고이는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사람들은 별로 원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 40대 남성 역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통일에 대해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현재 북한이 경제개혁을 못하는 이유도 그 사람들이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기들이 정말 그렇게 되는 날에는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통일되면 그 사람들이 될 하나. 기래서도 경제개혁을 못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반대하기 때문이지(40대, 남성).

본인들을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로 표현하는 북한주민들. 백성들은 “내가 죽고 남이 살아도 빨리 남북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모두 통일을 원하는데 힘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편하게 잘 살기 때문에 통일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말한다. 중앙당 간부뿐만 아니라 통일반대 세력으로 시장상인을 꼽은 응답자도 있었다. 그 역시 시장상인의 경우 통일이 되는 것보다 지금이 훨씬 더 편하게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통일을 반대할 것이라고 인식한다.

통일이 되면 상인의 필요성이 별로 없어지는데요. 지금이야 조선에 무슨 물건이 필요하거나 그러면 상인을 통해서 외국에서 다 들여보내는데, 통일 되게 되면 개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쪽쪽 들어오니깐, 이 사람들이 필요 없어지죠. 아무래도 상인들이 반대할 것 같아...

5.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들은 서로 잘 어울려 지낼 수 있을까?

통일은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으로 제도적, 정치적 통일 이후에도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 이해하며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의 통합과정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통일이후 남북한 출신 주민들이 어떻게 지낼 것이라고 인식하는지 여부는 통합과정을 준비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북한주민들은 통일 이후에 남북한 주민들이 잘 어울려 지낼 것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무엇보다 남북한의 풍습과 생활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함께 어울려 지내는지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인식한다. 특히 북한에 있을 때는 어렸을 때부터 받은 교육 때문에 남한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지만 중국에 와서 텔레비전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한 남한의 생활모습과 남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

나도 거기 있을 때는 남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 받은 것이 있으니,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말이에요. 근데 여기와서 텔레비를 보니까, 정말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더라고요. 우리 수준 상태라든가, 또 민족, 문화도 똑같으니까 생각되는게 참 많단 말입니다. 남한 사람들이나 북한 사람들이나 사람들은 진짜 한민족이니까 풍습도 같고. 그리고 ‘아침마당’ 봐도 그래. 그다음에 ‘생생정보통’을 봐도… 정말 다르게 없더라 말입니다. 똑같은 게. 사람들도 말하구 하는것도…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처음에는 좀 경계할 수도 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정말 가깝게들 똑같은 사람들이라 생각한다 말입니다(50대, 여성).

한 30대 여성 역시 남북한의 언어가 같다는 점을 주요한 특징으로 꼽았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이다.

첫째로 언어가 통하니까, 언어가 통하고 또 같은 민족끼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상태로 봐서는 아무래도 잘 어울리게 되어 있지(30대, 여성).

면접과정 중에도 남한 사람들에 대해 굉장히 호감을 보인 40대 여성의 경우 남한 사람들이 예절이 밝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을 잘 이해해 줄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남북한 주민들이 잘 어울려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증언한다.

그러나 보른 남한 사람들이 좀 예절이 밝고 그런거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좀 리해해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40대, 여성).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남북한의 현재 수준 차이로 인해 잘 어울려 지내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50대 남성의 경우 북한은 수준이 낮은 반면 한국 사람들은 기술수준도 높기 때문에 통일이 되면 남북한의 차이가 분명히 발생할 것으로 인식했다. 남북한의 경제적 수준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함께 어울려 지내는다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는 인식이다.

수준이 안되니까. 조선 사람들 수준이 낮다는 말이야. 조선 사람들 악으로 하지만, 한국 사람들 기술로 얼마나. 통일돼도 아무래도 수준이 배운게 없으니까…(50대, 남성).

하나는 발전 못하고, 하나는 발전 했으니깐 좀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60대, 남성).

북한에는 잘 살지 못하고, 한국은 아무래도 발전 빠르고, 북한은 아무래도 안 됩니다(40대, 남성).

한 40대 남성의 경우 북한의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난 후 점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야지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 통일되자마자 상황을 보면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하고 경제관념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본다. 특히, 북한은 한국으로부터 무조건 도움을 받으려고만 하는데, 하나를 받았으면 받은 사람도 무엇인가를 줘야만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식한다.

토대가 있고, 경제적 자립을 줘가지고 서로 리해관계 속에서 서로 친분을 가져야지, 통일 되자마자 너 못살고 나 잘사는데... 한국 국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자꾸 도와줄라 그러고 혼자서 뭐, 수해났을 때도 그렇고, 북한은 받아먹기만 하지... 내가 받았으면 내가 줄줄도 알아야 되지 않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받으면 조선에 쌀이 들어오는데, 우리 인민들은 몰라요. 쌀 얼마큼 들어오는지. 개성공단으로 통과 하는건 일체 비밀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남한의 주민들은 북한 못사는 것 뻔히 아니까 지원하려고 애쓰는데...(40대, 남성).

북한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남한보다 어렵기 때문에 주로 도움을 받으려 하지만 도움을 자꾸 받다보면 오히려 그것이 관계가 악화되는 요인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는 결국 ‘도움을 받는 자’와 ‘도움을 주는 자’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차이가 결국 남북한 주민들의 통합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없는 사람들이 자존심 더 강하잖아요? 그니까, 아무래도 한국분들은 힘든거 보면 도와주구 그런게 있잖아요? 조선에는 없단 말이에요. 도와줄라 그래도, 이게 뻔뻔한 사람들은요. 도와주면, 좋다고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도와주면 더 고깝지 않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게 있어서 힘들것 같아요(20대, 남성).

V. 결론을 대신하여:

남북한 주민들의 통일의식 비교와 정책과제

지금까지 본 연구는 북한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통일의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조사에서 응답한 북한주민들이 북·중 지역을 적게는 1회에서 수회 넘나들면서 중국 내 생활과 외부정보를 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경험이 전무한 북한주

민들 모두를 대변한다고 보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분단상황이라는 연구 여건 제약 내에서 100명의 북한주민과 면대면 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점, 응답자의 북한 내 거주지역 분포가 평양(16명)은 물론 평안남북도 내륙지역(58명)이 과반수 이상이라는 점, 본 조사에 응답한 북한주민 외에 주변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식 추정 질문 시도 등을 통해 최대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다.

본 조사에서 응답한 북한주민 100명은 통일을 바라고 통일에 대한 기대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일에 대한 기대는 북한 내부의 선전선동에 의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나 예상 통일시기, 통일을 경제적 이익으로 바라보는 관점, 북한에 주는 편익 등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북한 당국이 내세우는 민족 논리의 통일론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일시기에 있어서 10년 이내를 그 이상에 비해 단기로 설정했을 때 10년 이내라는 단기로 예측한 북한주민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그럼에도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시급히 해결할 사항 1순위로 미군철수/국가보안법 폐지(2.5)가 다른 답항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어 북한당국의 논리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편 2순위로 북한의 개혁개방과 경제교류가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통일을 경제적 이익, 편익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식과 종합할 때, 북한주민들의 통일의식이 경제적 논의로 향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게 된다.

더욱이 통일한국의 체제로 ‘남한체제(자본주의)로 단일화 한다’가 34명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북한주민들이 오랜 경제위기 가운데 통일이 경제적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유추하게 한다. “좀 배불렀으면 좋겠다”, “새처럼 다니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일이라는 심층면담 결과처럼 통일이 경제적 난관 극복과 자유를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엿볼 수 있다.

그럼에도 통일 방식에서 남한에 의한 북한의 흡수통일(22명) 보다 북한이 개혁·개방한 뒤 남한과 1대1 합의 통일이 59명으로 두 배 이상을 차지한 과반수 이상이라는 점도 더불어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통일에 대한 기대는 크지만 그 과정이 흡수통일이 아닌 북한의 개혁개방 과정과 남북한 1대1 합의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주민들이 남북한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 간의 가치관, 생활양식의 차이는 인정하지만 통일이 되었을 때 5년이라는 단기간 안에 남북한 주민들의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응답하여 실제 차이를 극복하는데 큰 어려움을 예상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국내 통일의식 조사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남북한 주민 간 통일 이후 통합과정에 대한 인식 차를 보여주고 있다. 즉, 남한 내 조사 결과들

에서 보여지는 통일 이후 주민 간 통합과정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문항의 차이로 등가 비교가 적절하지는 않겠으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2014 통일의식조사: 통일 준비와 대북정책, 국민의 평가와 기대’⁵ 중 일부와 비교함으로써 남북한 주민 간의 인식 차와 공통 지향점을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남북한 주민 간 통일에 대한 인식 차를 추측해 볼 수 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조사 결과, 통일 시점으로 ‘여건이 성숙될 때’라고 답한 비율이 61%로 가장 많았다. 이는 본 연구 결과에서 북한주민들 과반수 이상이 10년이라는 단기간 내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통일 시기에 대한 남북한 주민의 기대 차를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어떠한 체제로 통일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인식차가 좁혀져갈 가능성도 포착된다. 북한의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어떤 체제로 통일돼야 할 것인가에 대해 본 연구의 북한주민 응답자들은 통일한국의 체제는 남한체제(자본주의)로 단일화한다는 데에 34명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분포한 반면 북한체제(사회주의)로 단일화한다는 7명에 그쳤다. 이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조사결과에서 희망하는 통일한국 체제가 남한 체제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데에 44.9%의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과 상통하는 결과이다. 또한 남북한 체제를 절충한다는 데에 본 연구의 북한주민 26명이 응답해 2순위를 기록한 것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국내 통일의식 조사 결과 37.9%로 2순위였던 것과도 비슷한 양상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 북한주민 응답자들은 북한이 점진적으로 남한에 흡수돼 통일 될 것이란 데에 22명만이 응답한 반면, 북한이 개혁·개방한 뒤 남한과 1대1 합의 통일에 59명이 응답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통일 한반도 체제로서 남한 체제를 지향한다는 것은 본 조사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조사결과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거나 그렇다고 해서 통일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남북한 견해차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 응답한 북한주민들은 지향하는 통일 체제가 남한의 체제일지언정 그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통일과정은 남북한의 합의, 즉, 일방의 주도가 아닌 1:1 양자 간의 합의를 요청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중 누가 주도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 차 가능성과 이를 조율해 나가야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⁵ 전국 만 19~65세 성인 남녀 1,200명 대상 조사 결과.

이외에도 본 연구에서 응답한 북한주민들이 통일 이후 경제적 상황에 대한 기대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남한 내 인식 차를 예상하게 된다. 경제, 사회적으로 통일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긍정적 기대가 남한 내 대국민 의식조사 결과에 비해 더 크다는 점이다. 통일과정에서 나타날 남북한 주민의 인식차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통일이후 오히려 북한 지역 주민들의 경제, 사회심리적 실망감 내지 회의감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정책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북한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기대가 지배적이면서도 통일에 대한 회의적 인식도 간과할 수 없는 흐름을 형성하고 있었다. 특히 개성공단이 난관에 부딪히고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못하는 과정들을 알게 되면서 통일이 쉽지 않은 과정임을 예견하고 있다. 또한 북한 당국이 통일을 계속 부르짖어 왔던 것에 비해 통일이 요원하게 느껴짐으로 통일에 대한 회의감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파악할 수 있었다. 즉, 북한 당국이 통일을 강조한 만큼 이에 대한 실망감도 커지고 있으며 이는 남북한 통일에 대한 기대를 상쇄시키는 만큼 차라리 ‘전쟁’이라는 극단적 인식을 양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쟁으로 치닫는 인식 외에 핵, 미군철수 등 군사안보적 인식에 있어서는 한국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과 그 궤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통일정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본 연구에 응답한 북한주민들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시급히 해결할 사항으로 1순위가 미군철수/국가보안법 폐지(2.5)로 다른 정치, 경제, 인도적 사항 등에 비해 우세한 응답자 분포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또한, 북한 핵개발에 대해서도 핵개발을 중단하고 경제 개혁 개방으로 가야한다는 응답이 과반수 이상이나 끝까지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응답도 35명으로 전체 응답자 중 1/3 이상이 우리의 대북정책, 국제사회의 북한 핵에 대한 인식과 차이를 보이는 것도 앞으로 주목해 할 부분이다.

그 외에도 통일이후 희망 거주지로 북한이 41명이라면 남한이 32명으로 북한이 앞서지만 남북한 양 방향 응답자 수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통일 후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인구 이동 대비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기한다.

이상 본 조사결과를 통해서 본 북한주민들은 남한의 경제적 발전상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그러한 경제적 발전을 이룬 한국과 같은 통일조국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향후 우리의 통일정책 방향의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북한주민들이 남한의 발전상을 동경하고 통일조국으로서 한국을 선택할 수 있는 기본적 인지력을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체제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북한주민들 스스로 한국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할 수 있는 북한체제

변화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대북, 통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일의 대상자인 북한주민들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분단의 제약 속에서도 가능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감으로써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서는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로 인해 통일의 점진적 추진을 주장하는 의견들이 많다. 지금 당장 통일하기보다는 북한경제를 발전시킨 이후 남북한 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전제이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 북한주민들에게 통일은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출구라는 인식이 우세하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북한주민의 증언 중에 ‘전쟁을 해서라도 지금의 이 상황을 바꿀 수만 있다면’이라는 인식은 남북한 통일이 북한주민들에게는 시급하고 절박한 일이라는 점을 잘 말해준다. 통일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인식조사는 우리 사회에서 통일을 우리의 시각으로만 정의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본다. 북한주민의 현재 상황을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의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 접수: 10월 15일 ■ 심사: 10월 22일 ■ 채택: 11월 14일

참고문헌

1. 단행본

- 강동완. 『모란봉악단, 김정은을 말하다』. 서울: 선인, 2014.
- 강동완·박정란. 『한류, 통일의 바람』. 서울: 명인문화사, 2012.
- 박명규 외. 『2014 통일의식조사: 통일 준비와 대북정책, 국민의 평가와 기대』. 서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2014.
- 조민·한기범·김성배·장형수.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11.

2. 논문

- 강동완·박정란. “김정은 시대 북한사회 변화 실태: 북한주민 심층면접조사를 중심으로.” 『2014 세계 북한학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4.
- 김병로 외. “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 비교 분석.” 『통일과 평화』. 제4권 1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2.
- 박균열 외. “대학생과 성인의 통일의식 및 통일교육 시사점.” 『통일전략』. 제14권 2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14.
- 이내영. “한국인의 통일의식의 결정요인: 새로운 분석모델의 모색.” 『평화연구』. 제22권 1호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2014.
- 이성우.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통일여건의식의 상호관계: LISREL을 통한 구조방정식모델 분석.” 『통일과 평화』. 제5권 1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3.
- 함인희 외. “집단별 통일의식 차이에 관한 연구: 청소년, 여성, 386세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 연구논총』. 제5권 1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0.

3. 기타자료

- 『동아일보』.

Abstract

A Study on North Koreans' Consciousness of the Unification:
Based on Interviews with 100 North Koreans

Dong-Wan Kang and Jung-Ran Park

Given that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ims at building better life for both North and South Koreans, South Korea's policy direction for the unification should be changed in accordance with North Koreans' perception of the unification. We wonder how much North Koreans currently want to unify the Korean Peninsula and what kind of unification they desi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into how North Koreans think of the unification and what responses South Korea should take. South Korea has continuously conducted an examination on South Koreans' consciousness of the unification. However, so far few examinations have been carried out involving North Koreans, another party directly involved in the unification, about their consciousness of the unification. Given that South Korea's policy direction for the unification should be changed in accordance with North Koreans' perception of the unification, an examination on North Korean's consciousness of the unification should be conducted urgently. This study, therefore, presented quantitative statistics on 100 North Koreans' consciousness of the unification and explored their consciousness of the unification through in-depth interviews. Furthermore, the study compared North and South Koreans' consciousness of the unification and presented policy tasks.

Key Words: Consciousness of Unification, North and South Koreans,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Policy, Unification Benefit, Timing of Unification

